‘코로나 블루’ 명상으로 이겨내요

부산 경남, 상담 · 치유 목적 다채로운 명상 강좌 문 열어

어린이 · 청소년 위한 특별 명상
마음 쉼과 치유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심리상담소 새롭게 열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마음 근육을 키우는 명상 및 심리 프로그램이 부산, 경남에 새롭게 마련된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사람들의 우울감 수치가 높아지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고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명상 및 심리 프로그램이 부산, 경남에 새롭게 마련된다.

사단법인 동련어린이청소년협회(이사장 신공)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눈높이 명상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사)동련이 마련하는 이번 명상 프로그램 이름은 ‘감자피자’이다. ‘감사명상으로 자존감을 키워 꿈을 활짝 피우자’라는 뜻의 앞 글자를 모았다.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상 연령은 초등부 4~6학년(25명)과 중등부 1~3학년(25명)이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프로그램은 7월 4일~25일 매주 일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초등부는 오전 10시~11시 30분, 중등부는 오후 7시~8시 30분에 각각 마련된다.

프로그램은 자신의 얼굴을 관찰하고 명상하는 거울명상, 과자로 만다라를 직접 만드는 과자 만다라, 선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 젠탱글아트 명상 등이 마련된다.

강사는 배아영 강사와 장초희 강사가 담당한다. 배아영 강사는 현재 싱잉볼 아로마 명상 안내자 및 어린이 마음챙김 놀이 방과 후 특성화 강사로 활동 중이다. 명상 지도사 2급, 아동심리상담사 1급, 미술심리상담사 1급, 부모교육지도사 1급 등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명상 및 상담 지도를 진행 중이다.

장초희 강사는 현재 (주)카루나힐링 명상안내자, 삼성전자 힐링캠프 명상, 법무부 춘천꿈키움센터, 육군 그린캠프에서 명상을 안내 중이며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임직원 및 강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신청 마감은 6월 25일이며 신청자에 한해 감자피자 워크북과 명상 꾸러미 세트를 발송한다. (사)동련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종교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며 “자존감을 올리고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051)864-4569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한나래평생교육원 프로그램으로 ‘임상심리전문가의 상담’과 ‘붓다볼 치유명상’을 동시에 참가하는 콜라보 치유 과정을 마련한다.

홍법사 한나래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며 7월 8일 오후 7시30분에 시작해 2시간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매주 목요일마다 총 12주간 동안 진행되며 참가비는 25만 원, 모집인원은 10명이다.

강사는 김경숙 붓다볼메디테라피스트와 안민자 임상심리상담사(슈퍼바이저 · 만다라심리상담사)가 담당한다.

아울러 홍법사 한나래평생교육원은 붓다볼 입문반을 모집한다. 입문반은 8주 과정이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에 각 진행된다.

김경숙 붓다볼메디테라피스트는 “붓다볼(싱잉볼)은 의식을 현재에 이르게 하는 깨어있음을 돕고 치유나 명상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며 “전문 임상심리사의 상담과 함께해 더욱 깊은 치유 명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010-8643-6974

양산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동진)는 6월 11일 청소년심리상담소를 개소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양산시불교사암연합회는 코로나 기간에 소외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역복지를 위해 심리상담소를 개소했으며, 운영은 전문 상담가 김경미 소장이 담당한다.

김경미 소장은 현재 울산가정법원 가정지원 위탁위원을 맡고 있으며 한국예술심리치료협회 교수, 미샘미술심리상담센터 센터장으로 활동 중이다. 청소년심리상담소는 주 2~3회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을 선정해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복지에 앞장 설 예정이다. 055)387-7926

‘제9회 영축문화대상 수상 후보자’ 모집

봉사, 학술, 포교 등 3부문, 10월 30일 모집 마감

재단법인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은 ‘제9회 영축문화대상 수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모집 마감은 10월 30일까지이며, 시상은 봉사(실천)상, 학술(문화)상, 포교(원력)상 세 부문이다.

봉사(실천)상은 부처님의 자비 사상과 불살생 정신을 바탕으로 반목과 대립에서 화합과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데 몸소 실천한 자 혹은 단체를 추천받는다.

학술(문화)상 대상자는 전통문화를 연구, 발굴, 계승발전 시킴으로 정신문화를 복원시키고 맑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 한 개인 및 단체이다.

포교(원력)상은 돈독한 신심으로 수행정진과 전법에 매진함으로써 정법수호 및 불교인재 양성과 가람수호에 헌신하는 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후보 추천 기준은 국적, 연령, 직업, 학력, 종교에 구분이 없으며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동종의 공적으로 정부 관련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5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스님일 경우 조계종 소속으로 제한된다.

추천권자는 소속기관 및 단체 대표, 대학 학과장, 후원(봉사)회장과 조계종 재적사찰 주지 또는 기관장, 은사 스님이어야 가능하다.

수상자는 12월 1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월하 대종사 추모다례재날인 12월 14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된다. 후보자 추천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영축문화재단.com)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영축문화대상은 독립운동과 영축총림통도사의 수행가풍을 올곧게 계승한 구하당 천보대종사와 제9대 종정과 통도사 방장을 역임하며 불교정화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한 노천당 월하대종사의 유지를 잇기 위해 제정됐다. (010)4581-2597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양산 내원사, 천성산 산신재 봉행


내원사는 6월14일 천성산 정상 원효봉에서 산신재를 봉행했다.

내원사(주지 아용)는 6월 14일 천성산 정상 원효봉에서 산신재를 봉행했다. 산신재에는 내원사 주지 아용 스님, 원주 자민 스님을 비롯해 40여 명의 선방 수좌스님 및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매년 내원사는 단오절을 맞아 산신재를 봉행하고 있으며 내원사 경내 소금 묻기 등을 진행하고 생태계가 보존되길 기원하고 있다.

주지 아용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의 고통이 사라지길 기원하고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의 안녕과 평화가 가득하길 소원한다”며 “자연과 우리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알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경남파라미타, 청소년문화재지킴이 발대

김재호 경남 파라미타 회장 연임
2006년부터 문화재지킴이단 조직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6월 12일 정법사 불교회관 3층에서 ‘2021년 청소년문화재지킴이발대식 및 제7대 경남파라미타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경남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청소년문화재지킴이 발대식과 김재호 제7대 경남파라미타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사)경남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도문)는 6월 12일 정법사 불교회관 3층에서 ‘2021년 청소년문화재지킴이발대식 및 제7대 경남파라미타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경남파라미타 총재 도문 스님, 여여정사 주지 도명 스님, 황룡사 법진 스님, 김재호 회장, 최두찬 초대회장, 최형두 국회의원, 지도교사 외 경남파라미타 문화지킴이 단원들이 동참했다.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위촉장수여 △선서 △분회기 전달△상장 전달 △인사말 △격려사 △축사 △발원문 낭독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총재 도문 스님은 “청소년들의 문화재지킴이 활동은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접하도록 돕는 소중한 계기를 선사할 것이다”며 “문화재 지킴이로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접하고 안으로는 성숙한 인격을 완성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7대 회장으로 연임한 김재호 회장은 “청소년과 함께 추진하는 민관협력운동이다.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통해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재를 알고, 찾고, 가꿈으로써 문화재의 의미를 널리 공유하고 가치를 함께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회장은 ‘내 고장 문화재는 내가 지킨다’는 슬로건으로 2006년부터 문화재 지킴이단을 조직해 초, 중등교사 40명, 문화재지킴이 1000여 명과 함께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세종문학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으며 교육감상, 여성가족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임기는 2023년 2월 총회까지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동국대 경주캠, 본각 스님 초청 법회

6월 16일 정각원서 진행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원장 철우)은 6월 16일 교내 정각원 법당에서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을 초청해 2021학년도 1학기 교직원 종강법회를 봉행했다.

본각 스님은 동국대 72학번으로, 일본 고마자대학 대학원 불교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이사, 봉녕사 묘엄불교문화재단이사, 한국여성단체연합후원회 공동회장, 중앙승가대 명예교수와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날 법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석인원을 제한하여 봉행했다.

본각 스님은 “화엄교학 중 정행품은 일상 그대로를 기록한 것으로, 선용기심(善用其心) 즉, 매 순간마다 마음을 훌륭하게 쓰면 일체 공덕을 얻을 수 있다”면서 “욕심으로 살지 말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내 의지로 삶을 만들어가는 원력과 지혜의 삶을 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시한부 말기암 신속 소멸되는 의료기기임상실험 경제적 도움주실 분

허리·무릎·목·엉치·다리

수술 시술 근육치료 여러 의료기기



부항 여러가지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일회 체험하러 오세요.
진짜 거짓말처럼 즉각 효과를 확인해 볼수 있는 발명특허의 세상에 유일한 원리방식의 척추 · 골반 · 목뼈를 조정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말기암 환자분들은 반드시 체험하러 오세요. 암을 극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엔 암소멸에 대한 임상실험 반드시 하겠습니다.

말기암 환자 세분의 좋은 사례담

사례1 > 식도암과 간암 환자분 홍천에 사시는 65세 남성 5월 12일 삼성병원에서 항암제 주사를 맞으시고 의료기 체험 하러 오셨습니다. 체험해보시고 몸이 편하기는 하나 어떻게 암치료가 되겠는지 못 믿겠다며 의료기 값 중 절반을 주고 다음에 확실히 좋아지면 나머지 대금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싸우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항암제 주사를 맞고 그렇게 처음 편하게 잠을 잤고 몸이 천근만근하여 아침에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거뜬하게 일어났다며 믿음이 가신다며 다시 오셔서 의료기를 사 가셨습니다.

사례2 > 남양주시 사는 60세 여성은 2019년 1월 폐암 말기진단을 받고 “선생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폐에 물이 7리터 이상 차서 병원에 입원해서 100일간 물만 빼고 퇴원한 후 우리가 만든 ‘척추근육강화기 (의료기)를 꾸준히 활용하여 현재 병원 의사의 “매우 안정적이다" 라는 진단을 받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3 > 2019년 10월 50대 여성이 “병원진찰 결과 간에 암이 세개 발견되고 대장암은 너무 커버려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저희가 특허 발명한 위 의료기를 구입, 한달간 사용 후 간암은 완전히 소멸되고 두달쯤 사용하던 중 어느날 항문으로 피고름이 쏟아져서 무서운 마음으로 급하게 병원을 방문하여 상황을 말씀드리니 “검사 결과 암이 죽어서 거의 다 피고름으로 쏟아졌다”며 이제는 수술하는 게 좋겠다 하여 수술 후 완치됐습니다. 처음 저희 의료기를 불신하던 그분의 형제자매 6남매 모두가 의료기를 구입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주 전화하십니다.

의료기 개발자인 저는 “모든 암질환은 대부분 척추변위가 직접원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척추근육강화기(의료기)는 변위된 척추를 원래 척추로 교정해주는 의료기기입니다. 척추가 좋아지면 항암제부작용도 말기암 통증도 해소됩니다.
※ **질병 퇴치연구를 할수 있도록 도움주실 분 찾습니다.**

✲ 소자본 지점모집 ✲ NAVER 척추근육강화기 ▼ 검색 예약 010-6575-7866